

아시안컵 토종-용병 감독 '지략 대결'



16개 출전국 중 토종 7·외국인 감독 9개국
 14차례 대회서 자국 사령탑 우승 6번 불과

'지구촌 축제' 월드컵 축구대회에서는 아직 외국인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나라가 우승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도 비센테 델 보스케(61) 감독이 지휘하는 스페인이 정상에 오르며 자국인 감독 우승 행진은 계속 이어졌다. 지금까지 19차례 열린 월드컵에서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 그러나 아시안컵에서는 이와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카타르 도하에서 제15회 아시안컵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열린 14차례 아

시안컵에서 자국인 감독이 우승을 일궈낸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 6번에 불과하다. 아무래도 아시아 축구가 세계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 축구 선진국 출신 지도자가 와서 아시안컵을 품에 안은 경우가 자주 있었다. 특히 최근 6차례 아시안컵에서는 모두 외국인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자국인 감독이 우승한 것은 무려 27년 전인 1984년 사우디아라비아(칼릴 자야니 감독)가 마지막이었다. 이번 대

회에 출전한 16개 나라 가운데 자국인 감독이 사령탑인 곳은 7개 나라다. 원래는 6개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포르투갈 출신 주제 페레이루 감독을 해임하고 자국인 나세르 알 조하르를 후임 감독에 선임하며 하나 늘었다. 공교롭게도 A, C, D조는 자국인 감독과 외국인 감독이 있는 2개 나라씩 한 조가 꽤 흥미를 더한다. B조(일본·시리아·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모두 외국인 감독이었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인 감독으로 돌아왔다. 팀별로 1~2경기씩 치른 14일 현재 자국인 감독이 다소 우세를 보이고 있다. A조에서는 바담 아브라모프 감독이 이끄는 우즈베키스탄이 2승으로 단독 선두에 나섰고 D조에서도 압신 고트비 감독의 이란과 조동섭 감독의 북한이 나란히 외국인 감독이 이끄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를 상대로 1승1무를 거뒀다. 고트비 감독은 엄밀히 따지면 이란계 미국인이지만 이란 출신으로 1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얻은 경우라 자국인 지도자의 범주에 넣었다. C조에서는 조광래 감독의 한국과 독일 출신 홀거 오지크 감독이 지휘하는 호주가 있다. 13일까지 자국인 감독과 외국인

감독의 맞대결 성적은 자국인 감독이 4승1무2패로 앞선다. 조별로 1경기씩만 끝났을 때는 외국인 감독이 이긴 경우가 한 번도 없었으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브루노 메추(프랑스) 감독이 이끄는 카타르가 가오홍보 감독의 중국을 2-0으로 물리쳤고 아드난 하마드(이라크) 감독의 요르단이 조하르 감독의 사우디아라비아를 2-1로 제압하며 반격을 나섰다. 이번 대회 4강으로 꼽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한국과 이란이 자국인 감독을 썼고 일본(알베르토 자케로니)과 호주는 외국인 지도자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한국 팬들은 물론 조광래 감독이 27년 만에 자국인 감독으로 우승을 차지, 51년 만에 우승컵을 탈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연합뉴스

'돌풍의 팀' 요르단

2004년 본선 첫 출전후
 대회사상 유일 무패 팀

요르단이 제15회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돌풍의 팀'으로 떠올랐다. 요르단은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 107위에 아시아에서는 13위에 불과한 팀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일본(29위)을 상대로 1-1로 비기더니 13일(한국시간)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78위)를 1-0으로 물리치며 1승1무로 8강 진출을 눈앞에 뒀다. 재미있는 사실은 요르단이 지금까지 아시안컵 본선에 출전했던 32개 국가 가운데 유일한 무패 팀이라는 것이다. 물론 본선에 오른 것이 2004년 중국 대회에 이번이 두 번째지만 6경기에서 2승4무를 기록,

패배를 모르고 지냈다. 요르단보다 적은 경기를 치른 나라도 꽤 있지만 최소 1패 이상 당했다. 2004년 조별리그에서 한국, 아랍에미리트(UAE)와 0-0으로 비기고 쿠웨이트를 2-0으로 물리쳐 8강에 올랐던 요르단은 일본과 승부차기 끝에 3-4로 졌지만 공식 기록은 무승부로 남았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두 경기 모두 내용 면에서는 뒤지고도 1승1무를 수확해 '역시 쉽게는 안 진다'는 면모를 보여줬다. 요르단과 반대로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은 패배를 당한 나라는 중국으로 17패(17승12무)를 기록 중이다. 그 뒤를 이어서는 한국과 UAE가 13패씩 당해 공동 2위다. 한국은 최다 패 부른 2위지만 최다승 부문에서도 이란(32승)에 이어 24승으로 2위다. /연합뉴스



"이정도 슛은 태야쵸" 14일(이하 한국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열린 '2010-2011 스페인 국왕컵' 레알 마드리드와 AT 마드리드의 8강 1차전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마르셀로(오른쪽)가 슛을 하고 있다.

용병투수 트레비스 KIA서 뚝다

계약금 5만달러 연봉 25만달러 계약

KIA 타이거즈가 14일 외국인 투수 트레비스 블랙클리(29)와 계약금 5만달러 연봉 25달러 등 총 30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호주 멤버 출신인 트레비스는 좌완 정통파로 191cm, 88kg의 뛰어난 체격을 지녔으며, 2009년 제2회 WBC 대회에서 호주 대표로 출전했다. 프로경력 10년차인 트레비스는 지난해까지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산하 트리플A인 세크라멘토에서 소속으로 활동했다. 2004년 시애틀, 2007년 샌프란시스코 등 메이저리그 8경기에 출장해 1승3패 9.47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출장한 223경기 가운데 173경기를 선발로 등판해 66승 57패 방어율 3.99의 기록을 남겼다. 140km 후반대의 직구를 앞세워 파워 피칭을 하는 트레비스는 팔 회전 이 빠르고 커브 등 변화구가 수준급이라는 평가다. 트레비스는 16일 입국해 17일 메디컬체크를 받은 후 캠프지인 판으로 넘어가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금호고 출신 윤정환 日 J2리그 감독 취임

일본 프로축구 J2리그(2부) 시간 도스의 감독 대행에 맡아왔던 광주시 금호고 출신의 윤정환(38)이 마침내 대행 피리표를 땀다. 시간 도스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윤정환 수석코치 겸 감독 대행에 2011시즌부터 감독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대표적 테크니션으로 손꼽혔던 윤정환은 2006년 시간 도스로



이적하고 나서 2007년 현역에서 은퇴했다. 2008년부터 시간 도스의 코치로 활동하던 윤정환은 지난해 수석 코치 겸 감독 대행에 맡았다. 윤정환은 "시간 도스에서 생활한 지 6년째다. 감독의 기회를 준 구단에 감사한다"며 "지난해 성적을 반성하면서 올해는 코칭스태프와 선수, 서포터스들이 하나가 돼 1부 리그로 승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 ▲신춘자씨 차남 강현석(전남일보 기자)군 순회준·주복순씨 오녀 옥연양=15일(토) 오후 12시 광주 이화웨딩개홀 2층(축복실)
- ▲김영숙씨 장남 서오현군 장영택·김명자씨 장녀 선희양=15일(토) 오후 1시 광주 메리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 ▲김연호(하남철강(주) 대표)·민순자씨 장남 나민군 전정철(담양군의회 의장)·박명순씨 장녀 청아양=15일(토) 낮 12시 30분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 ▲김정규·한말남씨 차남 경환군 이수수(전 광주매일 제작국장)·정옥남씨 장녀 소연양=16일(일) 낮 12시 구례군 마산면 지리산프라자

호텔1층(천왕봉실)

부음

- ▲황광호씨 별세 태현·수민·정숙씨 부친상=발인 15일(토)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 ▲김창금씨 별세 신·승·춘·성·석·정·화·명·자씨 모친상=발인 15일(토)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 ▲김정금씨 별세 박래훈(광호토건(주))씨 모친상=발인 15일(토) 일곡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062-574-4445.
- ▲임옥희씨 별세 김병철·미란·소형씨 모친상=발인 16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 ▲백점례씨 별세 문명인·명기·명식·명진·명자·명희씨 모친상=발인 16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정길업 님(여/88세) 子/子婦: 민현식 / 이숙희 권식 / 한미숙 女/婿: 민순옥 / 박광택, 순양 / 양희수 경옥 / 김광정 • 호실201호 • 발인: 1월 17일 • 장지: 영락공원	故 공상영 님(여/83세) 子/子婦: 박영희, 영구/배희남, 영근/김영일 女/婿: 박영일/김영철, 영란, 영미/김용대 영선/문정주 • 호실301호 • 발인: 1월 15일 • 장지: 영락공원
故 김기봉 님(남/84세) 子/子婦: 김대수/김혜숙, 대원/함영림, 대근/대용/개민희 女/婿: 김안순/이학진, 안례/이신통 경희/ • 호실402호 • 발인: 1월 16일 • 장지: 화순읍	故 김복래 님(여/81세) 子/子婦: 배재권/김영숙, 재희/재국/ 女/婿: 배영순/주영철 • 호실401호 • 발인: 1월 15일 • 장지: 영락공원
故 박주희 님(여/61세) 子: 박재우 • 호실101호 • 발인: 1월 15일 • 장지: 영락공원	

추 금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김민호·태석 씨 모친상 발인: 1월15일(토) 08시00분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12
 ▲최달·원·가성 씨 모친상 배동인·정인주·이화연·임영호씨 부모상 발인: 1월15일(토) 9시00분 장지: 광주송파동선영 연락처: 250-4407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

인사

- ◆광주시
 - ◇지방부이사관 ▲환경생태국장 신광조 ▲건설방재국장 송영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옥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심정보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김형수 ▲교육 파견 박락진, 김상호, 노희용
 - ◇지방서기관 ▲공보관 이병렬 ▲기업유치지원관 안치환 ▲국제협력관 김정훈 ▲시의회 총무담당관 김호성 ▲시의회 의사담당관 문석훈 ▲동구 전출서동진 ▲법무담당관 김에리 ▲문화수도지원과장 임영일 ▲문화예술산업과장 정여배 ▲관광진흥과장 염방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덕찬 ▲도시재생과장 허익배 ▲건설행정과장 윤상선 ▲계약심사과장 정수택 ▲전략산업과장 하태선 ▲기업지원과장 오순철 ▲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승호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한하민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김준영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신

- 상식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임근현 ▲광주하계U대회조직위 파견 김병수 ▲" 김민규 ▲남구 전출 김범일 ▲생태하천수질과장 유용민 ▲도시계획과장 백봉기 ▲방재관리과장 유재준 ▲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최만욱 ▲상수도사업본부 운영정수사업소장 박정식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박진홍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장 이종근 ▲농업기술센터수과장 김정동 ▲교육 파견 박창기, 김집중, 장학기, 이종환, 박득서
- ◆전남도
 - ◇지방서기관 승진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의회 사무처 민상기 ▲전남인재육성재단 남재희 ▲예산담당관 양재승 ▲서울투자유치사무소장 김양수 ▲의회 사무처 정근택 ▲여성가족과장 신현숙 ▲F1대회조직위 파견 조태용 ▲의회 사무처 김용철 ▲전남테크노파크 파견 정남래 ▲남해안선벨트 지원관 장정기 ▲F1대

- 회조직위 파견 박봉순 ▲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소장 김종선 ▲축산위생사업소장 윤창호 ▲축산연구소장 하창호
- ◇지방서기관 정보 ▲교영연 여수 박달회지원관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세무회계과장 안용찬 ▲해양항만과장 최성현 ▲F1대회조직위 파견 윤승중 ▲전남신용보증재단 파견 정현호 ▲전남생물재단 파견 설인철 ▲의회사무처 박종균 ▲해외유동수 ▲전남개발공사 파견 유동수 ▲전남발전연구원 파견 김영희 ▲교육파견 손영호, 송경일, 전영재 ▲천황기념사업과장 전종화 ▲해양수산과학원장 신우철 ▲지역계획과장 설동진 ▲도로교통과장 송자섭 ▲방과과장 오광록 ▲도로관리사업소장 명성인 ▲전남개발공사 파견 윤순홍 ▲광양민권경제자유구역청 파견 강양수 ▲여수시 파견 고성석 ▲나주시 파견 김홍식 ▲교육파견 신태욱 ▲호남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파견 방길현 ▲농업기술원 천환경교육과장 황수정